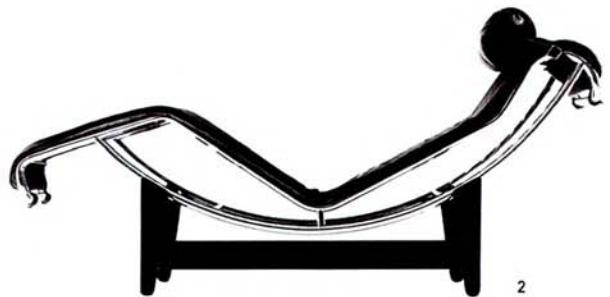


인간 중심을 새롭게 하는 예술가로서의 삶

# Le Corbusier

라 쇼드퐁의 팔레 주택, 사보아 주택, 룡상 성당, 라 투레트 수도원, 카프 마르탱의 오두막 등의 대표적인 작품을 남긴 20세기 건축의 거장 르 코르뷔지에. 그의 생애를 따라 펼쳐지는 작품과의 조우. 에디터 이금희 번역 우영선 자료 제공 마로니에 북스([www.maroniebooks.com](http://www.maroniebooks.com))



2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을 정의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와 비교할 만한 인물이 있다면 피카소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 예술의 여러 사조들을 이끌어낸 피카소처럼 르 코르뷔지에는 한결같은 노력으로 현대 건축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르 코르뷔지에의 회화적 양식이 다년간 친분을 유지하고 함께 작업도 한 페르낭 레제(Fernand Léger)의 스타일에 더 가깝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넘쳐나는 상상력과 뛰어난 창의성, 각고의 노력, 후대의 건축가들에게 미친 영향에 비추어볼 때, 어쨌든 르 코르뷔지에는 20세기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가로 평가되어도 무방하다. 광의의 의미에서 그는 예술가였다. 그는 건축가이자 동시에 화가, 조각가, 가구 디자이너, 건축 이론가였다. 이러한 만능인으로서의 예술가를 사회적 임무나 인간 정신을 새롭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했다. 신도시를 위한 일종의 선언문이자 안내서인 <아테네 헌장(Charter of Athens)>의 여러 구절에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그의

자세는 물론 그 외 여러 입장들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다. 1933년 열린 CIAM 제4차 회의 때 편찬된 후 1942년 익명으로 출간된 이 책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도시들은 무질서한 이미지처럼 보인다. 이 도시들은 그 어떤 방식으로든 본래의 목적들, 즉 도시 거주자들의 생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켜야만 하는 목적들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사리사욕이 낡은 폭력은 한편으론 경제적 힘이 지닌 모종의 압력,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약화된 정부 지배 시스템과 사회적 결속의 중요성 사이에 형성되어야 할 균형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 도시 그리드 내에 속한 모든 것의 규모는 인간의 척도에 따라서만 제어되어야 한다.”

합리주의 건축을 주도한 인물인 르 코르뷔지에는 논리와 이성인 불행과 무질서를 치유하는 최상의 해독제임을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르네상스의 ‘황금분할’ 개념을 부활시켜 건축에 적용했을 뿐 아니라 ‘모듈러’의 원리에 따라 이것을 인간의 신체에도 적용했다. 이와 동일한



1 르 코르뷔지에, 라투레트 수도원, 1957~60년, 프랑스 론알프 주 에비, 2 르 코르뷔지에, 샤를로트 피에랑, 피에르 잔느레, 1928년. 이 건 의자는 1965년에 설립된 카시나(Cassina) 가구에서 생산되었다. 3 르 코르뷔지에, 사보아 주택의 외부, 1928~30년, 프랑스 푸아시(Poissy), 르 코르뷔지에, 부아장 계획, 1925년, 파리, 르 코르뷔지에 재단. 4 르 코르뷔지에, 의회의사당, 1956~65년, 인도 찬디가르.

이유로 그는 모든 것이 인간의 경험에 비추어 계획되는 합리적 구조물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종국에 그는 이런 엄중한 논리적 접근이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해결책을 자각하며 노출 콘크리트가 불러일으키는 감성적 가능성을 재발견함으로써 새로운 양식인 '아수주의(Brutalism)'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기능주의와 합리주의 사이의 단일체라는 믿음이 깨지면서 20세기 건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다른 양식들이 부활하게 되었다.

**Life & Works** 르 코르뷔지에로 알려진 샤를 에두아르 잔느레(Charles-Edouard Jeanneret)는 1887년 스위스 라 쇼드퐁에서 태어났다. 1900년부터 1905년까지 그는 이곳의 응용예술학교에 다녔다. 열아홉 살부터 서른세 살까지 그는 유럽 전역과 중동을 여행하며 스케치를 하고 건축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그는 비엔나의 요제프 호프만(Joseph Hoffmann:1907) 사무실, 파리의 오귀스트 페레(Auguste

Perret :1908) 사무실, 베를린의 피터 베렌스(Peter Behrens: 1911) 사무실에서 일했다. 그가 처음으로 손을 낸 작품은 소위 '돔이노 주택(Dom-ino)' 이라 불리는 단순하게 조립된 2층짜리 구조물이었다. 1917년 그는 파리로 이주했으며, 그곳에서 회화에 몰두했다. 1922년 사촌인 피에르 잔느레(Pierre Jeanneret)와 함께 건축과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1925년에 그는 파리 시를 재건하는 '부아장 계획(Plan Voisin)' 을 내놓았다. 이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몇몇 작품들 중의 하나로 꼽힌다. 1948년 그는 비례에 관한 소책자인 <모듈러(Le Modulor)>를 출간했다. 근대 운동을 이끌어가던 인물이자 국제주의 양식의 주도적 인물이었던 르 코르뷔지에는 1965년에 사망했다. ㉞

• 전 세계의 유명한 건축물을 소개하고 있는 출판물 <언더스탠딩 아키텍처(Understanding Architecture)>. 1부에서는 공간의 개념, 비례에 대한 연구, 영토계획, 도시계획, 건물 타입과 스타일 등으로 유명한 건축물들을 분석하고, 2부에서는 당대에 유명했던 건축가들과 그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 이미 미국과 이탈리아를 비롯한 그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출간되었고 3월경 마로니에 북스에서 번역, 출간될 예정이다.